

보존료 사용 등을 올 수입식품 부적합률 0.73%

서울식약청, 158건 92만달러어치 반송 등 폐기조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동 청으로 신고된 수입식품 총 2만1738건(중량 2만9922톤, 금액 2억8507만6000달러)을 검사한 결과 158건인 0.73%(중량 96톤, 금액 92만2000달러)가 부적합돼 반송 등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입식품 부적합률은 2005년의 0.77%보다 약간 낮은 0.73%였다.

주요 부적합 내용을 보면 품목별로 합성보존료(안식향산) 등이 검출된 기타가공품(19건)이 가장 많았으며 비타민함량 미달 등 복합영양보충용제품(14건), 신고하지 않은 보존료 검출 등 과실주(13건), 타르색소 등을 사용한 당류가공품 등의 순이며, 항목별로는 보존료(50건), 함량 미달(37건), 미생물(대장균군, 세균수)(17건), 허용외 첨가물(10건)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42건), 일본(14건), 중국(14건), 이탈리아(12건), 스페인(10건), 호주(9건), 독일(8건), 프랑스(8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간 수입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건강기능식품 등 신소재 원료제품 등의 수입증가에 따른 이들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식품 부적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서울식약청에서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 검사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서울식약청이 수도권지역의 수입식품 전문상담 기관인 만큼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한편, 국내외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실시간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적 관리를 병행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입현황

2006.12.15 현재

기간	총건수	중량(톤)	금액(천불)	부적합건수(%)
2005년	21,380	32,402	413,758	164(0.77%)
2006년	21,738	29,922	285,076	158(0.73%)

■ 주요 국가별 부적합식품 현황

순위	국가명	건수	중량(kg)	금액(\$)	주요부적합식품
계		158	95,584	921,829	
1	미국	42	7,255	273,791	복합영양보충용제품, 비타민D보충용제품, 사탕류, 기타가공품, 건조효모제품 등
2	일본	14	3,807	78,459	어묵, 기타가공품, 국수(숙면류), 식이섬유보충용제품 등
3	중국	14	43,833	210,377	기타가공품, 기타식육가공품, 기구류중폴리프로필렌, 화분제품 등

순위	국가명	건수	중량(kg)	금액(\$)	주요부적합식품
4	이탈리아	12	4,494	28,542	당류가공품, 기타가공품, 두류가공품 등
5	스페인	10	2,577	26,033	카스테라, 크림빵이외의빵, 과실주, 복합영양보충용제품
6	호주	9	2,074	84,910	스쿠알렌함유제품, 스피루리나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과실주 등
7	독일	8	779	8,630	스피루리나제품, 소스류, 과실주, 과실음료
8	프랑스	8	12,152	26,750	과실주, 겨자가공품, 당류가공품, 과실주스
9	대만	5	1,446	21,691	혼합음료, 케이크류, 당류가공품, 기구류중폴리프로필렌
10	캐나다	5	1,542	10,882	당류가공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비타민E보충용제품, 홍국제품
11	네덜란드	4	113	5,859	스피루리나제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
12	말레이시아	4	731	32,587	클로렐라제품, 카스텔라, 크림빵이외의빵
13	베트남	3	7,022	27,809	조미건어포류, 국수(건면류), 수산물가공품
14	필리핀	3	666	875	과실음료, 기타빵또는떡류
15	노르웨이	2	26	225	소스류
16	뉴질랜드	2	755	10,226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 도코사헥사엔산(DHA)함유제품, 스피루리나제품
17	이스라엘	2	328	3,353	용기류중실리콘수지, 과실주
18	칠레	2	543	903	과실주
19	기타	9	5,440	69,928	소스류, 스피루리나원말, 두류가공품, 기타가공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유지,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 도코사헥사엔산(DHA) 함유제품, 야자유

[특집]

업종별 결산 및 07년 전망 - 건강기능식품

**대기업 참여 · 규제 강화로 품질-물량 동반 성장
시장 8% 늘어난 2조 3000억원 규모
다단계판매 줄고 전문점 · 홈쇼핑 증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업계는 화장품 제약회사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이 속속 참여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된 것과 함께 정부는 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기틀을 마련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지난해 기준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조3000억 원으로, 전년의 2조1000억 원보다 8% 가량 신장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기업 진출에 따른 자본 유입으로 전문점 증가와 홈쇼핑이 강세를 보인 반면 방문판매는 저조했다. 또한 업체간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이 눈에 띄게 강화됐으며,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홍보 전략에 편승해 매출을 만회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판매방식으로는 방문판매가 38.8% > 다단계판매 30.8% > 전문점 13.5% > 홈쇼핑 8.9% > 기타 8.5%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 비해 다단계 판매는 68% 하락한 반면 전문점 판매는 무려 116%가 상승해 로드숍 및 백화점내 전문점을 이용한 판매와 홈쇼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고시형 재평가를 통한 기준규격 개정이 추진됐으며 GMP 적용업소 본격시행을 통해 지난 한해 38개 업소가 추가 지정을 받아 2005년의 28개 업소를 포함해 총 66개 업소가 GMP를 획득했다. 또한 불법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사후관리 강화, 개별 인정형 모니터링 등이 실시됐으며,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계 지원과 기능식품 제조관리 표준화를 위한 전산화, E-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해 소비자가 품목제조신고 된 기능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의사, 약사,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

가 교육 등이 크게 활성화됐다. 개별인정형 제품으로는 지난해 2월 홍경천 등 복합추출물에서부터, 탈지달맞이꽃종자추출물, 올리브잎추출물, 카제인 가수분해물, 글루코사민, HemoHIM 당귀



등혼합추출물, 라피노스, 식물스타놀에스테르, 구아바잎, 로즈힙분말, 대두 유래 포스파티딜 세린, 표고버섯균사체 AHCC, 폴리코사놀-사탕수수 왁스 알코올,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 껍질추출물 등 총 14개 품목이 인정을 받았다.

바이오네트워크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판매 유통 중 다단계 판매의 인기품목은 비타민, 미네랄로, 암웨이, 하이리빙, 뉴스킨, 허벌라이프 등 핵심기업군을 중심으로 728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의 인기품목으로는 알로에와 칼슘이 꼽혔으며 남양알로에, 풀무원테크, 알로에 마임 등이 9211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건강기능식품 전문 로드숍은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동원 F&B GNC, 풀무원 내추럴하우스 오가닉, KT&G 휴럽 등이 핵심 기업군으로 인기품목은 홍삼이 뽑혔다. 백화점 및 할인점내 전문매장은 대상웰라이프, CJ뉴트라, 롯데헬스원 등이 강세를 보이며 홍삼 및 비타민제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약국 및 병원 내 점포로는 비타민하우스, 비타민뱅크, 종근당건강, 한미약품, 대웅제약, 일진제약, 서홍캡셀, W-스토어, 온누리약국 등이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멀티비타민, 글루코사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 판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전문점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총 30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외에도 인포머셜 홈쇼핑은 대상, 정관장, 렉스진바이오텍, 종근당, 서홍캡셀 등이 핵심기업으로 꼽혔으며 홍삼, 식이섬유, 글루코사민 등을 앞세워 2100억 원대의 매출을, 인터넷 및 기타 유통망을 이용한 판매는 건강기능식품 주요업체가 다수 포진된 상황이며 비타민이 주력품목으로 2000억 원의 매출을 각각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업체별 매출실적으로 보면,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의 경우 지난해 보다 20% 성장한 4300억 원을 달성했다. 인삼공사는 지난해 1200억 원의 매출로 1위 품목에 올라선 '홍삼정'을 필두로, 히트상품으로는 어린이보양식품인 '홍이장군'이 히트상품 반열에 오를 정도로 호응 얻었다고 밝혔다.

대상 웰라이프는 홈쇼핑, 할인점, 백화점, 약국 등에 클로렐라, 감마리놀렌산, 글루코사민 등의 주력제품을 내세워 2005년 대비 25%이상 성장한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유니베라'로 상호변경을 통해 천연물 기업으로 변신한 남양알로에는 '알로에엑스폴드 액티브'와 황금에서 추출한 신소재 '유니베스틴케이'로 만든 '리제니케어 K'를 앞세워 11% 성장한 2600억 원을, 풀무원 그린체는 로젠빈감마리놀렌산, 동충하초를 주력제품으로 내세워 50% 성장한 1200억 원, 지난해 품질향상부문에서 식약청장상을 수상한 비타민하우스는 10%성장한 28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채널별 매출비중은 약국 30%, 병원 20%, 백화점 및 할인매장 15%, 홈쇼핑 25%, 온라인 7%, 기타채널 3%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타민하우스측은 성장과 관련 '건강기능식품 속인숍' 사업의 성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으며, 2004년 병원사업 도입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병의원은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앞으로 수입품보다 독자적 제품개발을 통한 차별화 제품으로 판매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렉스진바이오텍 서홍캡셀 일진제약 등 OEM 제조업체들 역시 지난 2005년에 이어 10% 이상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07년 전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홍삼돌풍, 건강식품 구입경로의 다양화, 소재중심 제품 패션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망 연구 분야로는 뷰티 푸드와 노화방지 비만방지, 어린이

기능성 식품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삼의 경우 다른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효능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재구매율 또한 35.5%로 알로에 4.4%, 글루코사민 4.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강화와 더불어 정관장, 롯데 헬스원, 대상 웰라이프, 동원F&B등의 접점이 예상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현재 식품 중 특수용도식품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식품의 유용성 등의 표시 광고 인정범위를 확대해 일반식품도 '건강유지, 건강증진 등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비타민, 칼슘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이 가능해 지는 만큼 특히 음료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일반식품업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기능성 음료의 경우 가격, 유통, 홍보를 포함한 마케팅 부분에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 업계보다 우월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강기능식품 외에 일반식품과의 경쟁을 위한 제품개발 및 마케팅 방안 설정이 시급해졌다.

또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현 허가에 따른 여파로 건강기능식품 원료소재 개발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도가 예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떠오르는 새로운 이슈로는 업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던 CoQ10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이 이달 개별인정으로 허가가 남으로써 일본의 인기 여파를 국내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가에 업계측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상반기 CoQ10의 행로가 건식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7. 01. 04 / 식품음료신문 -

프로폴리스가 궁금해요

Q : 프로폴리스를 여드름이 심해서 먹고 바르고 있습니다. 피부과 치료를 같이 받고 있는데 피부과 약과 같이 먹고 발라도 되는지요?

A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피부과 치료와 함께 프로폴리스를 섭취하고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드름은 피부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피부상재균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프로폴리스가 피부상재균에 대한 항균기능을 연구하여 억제 효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섭취는 1일 3회, 1회에 15~20방울 이상을 생수 반 컵에 타서 섭취하면서 저녁엔 여드름 부위에 프로폴리스를 발라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화농화된 여드름을 짰 후 바로 프로폴리스를 발라주면 강한 살균작용과 항염증 효능으로 익일 아침 여드름부위의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2차 감염을 막아주게 됩니다. 여드름 피부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프로폴리스로 만든 비누와 화장품을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서울프로폴리스〉